축 사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된 속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이며 모든 이가 행복해야 나 또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어르신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가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울노인영화제는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축제의 장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회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노력이 잘 이어져 온 성과라고 여겨지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영화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서울노인영화제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넓고 열린 마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찰의 문이 항상 열려있어 넓은 마당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듯이 서울노인영화제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노인영화제가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의 향상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공경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매개로 더 많이 함께할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기 가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위해 진력하신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불기2556(2012)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 승 합장